

<https://doi.org/10.57228/KRJ.65.3>

KRJ 65(2023) 79-118

이그나티우스의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행복론: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조 윤 호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1 들어가는 말:

이그나티우스의 가치관 생성과 행복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eudaimonia*)을 다양성 속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중과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 다양한 답을 제시한다.¹ 행복이란? 행복의 생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신적 요소에서 답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학습

* 논문투고일: 2023.08.06.

논문수정일: 2023.09.10.

게재확정일: 2023.09.14.

1 Aristoteles, *Ethika Nikomacheia*, 천병희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파주: 숲, 2015), 27, 42; “어떤 사람은 행복을 미덕이라고, 어떤 사람은 실천적인 지혜라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소간의 쾌락이 수반되는 이런 것들의 결합, 또는 이런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 미덕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역설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제13장에서 행복을 “궁극적인 미덕에 걸맞은 영혼의 활동”²으로 보고 있다. 행복을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족적인 것에 대한 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과 어른이 느끼는 행복이 다르며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들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행복은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은 느끼는 것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결과물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이 행복이 될 수도 있다. 행복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³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인간의 가치관과 활동적인 요소에서 찾아지고 있다면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A.D. 35-108)의 행복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에서 발견된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일곱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⁴ 그의 서신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서신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가치관이 그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그의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 번째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2장 제2절에서 사

2 Aristoteles, *Ethika Nikomacheia*, 13.5, 55.

3 Kevin J. Vanhoozer, *Hearers and Doers*,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있는사람, 2020), 276-277.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과 전반적인 것을 변화시킨다.

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660-664; Henry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4;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를 향하는 순교의 여정 속에서 일곱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 서머나에서 「에베소 인들에게」,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트랄레스 인들에게」,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네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폴리갑에게」 보내는 세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

신이 순교 현장을 향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바울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표현한다.⁵ 그리고 순교 현장을 향하는 자신에게 갈등과 두려움 대신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서’라는 사실을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제5장 제1절에서 밝히고 있다.⁶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은⁷ 그의 서신의 인사말이 바울의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⁸

두 번째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진정한 가치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 이런 가치관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고난을 바라 본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그 속에서 행복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안에

5 Henri de Lubac,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광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화성: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116;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563.

6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왜관: 분도출판사, 2007), 39; Diarmaid MacCulloch, *A History of Christianity: The First Three Thousand Years*, 박창훈 역, 『3천년 기독교 역사 I : 고대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206; A. M. Ritter, *Kirchen-und Theoolgiegeschichte in Quellen: Alte Kirche*, 공성철 역, 『고대교회 : 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59-62;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27-228; Eusebius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3:36, 109-111;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조규만 외 3 인역, 『신학사 1』(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126.

7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33; H. R.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왜관: 분도출판사, 2015), 120; Adalbert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9, 61;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227-230.

8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4 (2022): 50-51.

서 행복을 찾고 있다.⁹

이그나티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행복론은 단순히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의 서신에서 나타나는 일곱 가치관 가운데 발견되는 행복론은 참된 행복을 그리스도론과 십자가론을 통해 발견하도록 한다.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연구는 서신의 진본을 가리는 고고학적 연구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바라보는 감독 제도와 일치에 관한 것이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속사도를 비롯한 교부 시대 특히 이레나이우스 이전 교부들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통전적 신학의 모습은 당시의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단으로부터 불어닥치는 교리적 혼란과 함께 로마 정부 등으로부터 가해 오는 핍박은 신앙과 신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논해지고, 말해졌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 담고 있는 신학적 요소와 서신 속에 나타나는 그의 신학적 정서와 사상적 고찰은 그의 서신의 진품을 가리는 고고학적 연구에 가려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일곱 편의 서신을 중심으로 서신 속에 부각되고 있는 그의 가치관에는 어떤 행복론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말미에서는 이그나티우스의 세 가지 가치관 (1) 신앙의 가치관 (2) 역할의 가치관 (3) 참된 고난의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행복론이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 어떤 가치를 발하고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9 Richard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1, 박홍규 역, 『기독교 생활 지침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33.

2 이그나티우스의 세 가지 가치관과 행복론

이그나티우스의 행복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 로마로 압송당하는 가운데 기록된 일곱 편의 서신에 보면 그의 가치관은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떠나서 논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의 일곱 서신에 나타나는 행복론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일곱 가지 유형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신앙의 가치관’이다. 이것은 십자가 신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따른 가치관과 함께 ‘신앙의 확신’ 속에서 그의 행복론이 발견된다. 두 번째는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다. ‘함께 동역하는’ 역할 속에 비치는 행복과 ‘한마음’을 이뤄 가도록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행복이다. 세 번째는 ‘참된 고난’ 가운데 찾는 행복이다. 여기에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가치관과 ‘부활의 확신’이 주는 참된 행복이 있다.

2.1 신앙의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행복론

2.1.1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되는 가치관’에서 찾는 행복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한다. 사람들은 행복을 사회와 종교 그리고 현실적 복지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¹⁰ 행복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천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그러나 지상에서 주는 행복을 얻기 위해 취하는 집착은 그 집착에

10 Wendy Mayer, “Re-Theorizing Religious Conflict: Early Christianity to late antiquity and beyond,”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3-6;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34-35.

의해 자신이 함몰당하기도 한다.¹¹ 여기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는 『신국론』에서 행복을 ‘신적 섭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¹² 그에 따르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황금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리라. 그분은 자기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과 은은 그렇게 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여 숨겨 두든 진실을 말하여 넘겨 주든, 금과 은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이었다.¹³

참된 행복은 영원한 생명과 삶과 연결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한 삶을 영원한 것과 연결하여 논한다.¹⁴ 행복의 참된 길과 가치관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가운데서 찾는다. 이런 행복관은 교부들의 신앙관 가운데 나타났던 특징적인 한 요소였다.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여섯 명의 속사도 교부¹⁵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지인 로마를 향한다. 압송도중 서머나에 머물며 기록한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관찰해 보면 그가 어떤 성격과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그 유형이

11 Augustinus, *De Civitate Dei*, 2.24.1, 성염 역, 『신국론』 1.8.2; 5.21 (왜관: 분도출판사, 2004), 289.

12 Augustinus, *De Civitate Dei*, 129, 609-611.

13 Augustinus, *De Civitate Dei*, 1.10.3, 143.

14 Augustinus, *De Civitate Dei*, 7.서언; 7.1, 705-707.

15 F. F. Bruce, “The History of New Testament Study,”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ed. I. Howard Marshall, 이승호 · 박영호 역, 『신학 교육의 역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64;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31. 여섯 명의 속사도 교부는 Clement of Rome, Ignatius, Polycarp, the author of 2 Clement, ‘Barnabas’, Hermas이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바라보면서 ‘열 마리 표범’과도 같은 호위병들의 사슬에 묶여 밤낮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피력한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다.¹⁶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을 다루었던 하르톡(Paul A. Hartog, 1970-현재)은 이그나티우스가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서의 고통’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⁷

하르톡의 주장처럼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여러 환경적 요소와 가해 오는 핍박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취한다.¹⁸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삼을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¹⁹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어떤 과정에 주어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공포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²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16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갯신과 부흥』 30 (2022): 19.

17 Paul A. Hartog, “Imitatio Christi and Imitatio Dei: High Christology and Ignatius of Antioch’s Ethics,” *Perichoresis* 17.1(2019), 3, 6-8, 16.

18 Ignatius, “To the Ephesians,” 1:1-2,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88-89.

19 Ignatius, “To the Romans,” 5:1-3, 104-105.

20 Paul J. Donahue, “Jewish Christianity in the Letters of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32 (1978): 82;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생명으로 나가는 것”²¹이라고 밝힌다.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6장에서 죽음이 면해지도록 로마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억 남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했던 속사도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교리적 관점이다. 그는 죽음과 관련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원죄의 교리를 분명히 했다.²² 두 번째는 신앙적 관점이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십자가 신앙’을 따르는 죽음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죽음으로 여기고 있었다.²³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6장 제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난’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가 당하는 수난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수난’을 따랐다면 로마를 향한 자신의 순교는 그 값을 되새기는 순교자의 걸음이었다.²⁴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자

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36.

21 Ignatius, “To the Romans,” 6.1, 105.

22 Gijsbert Van den Brink & C. Van der Kooi, *Christian Dogmatics: An Introduction* (Michigan: Wm. B. Eerdmans, 2017), 90; Thomas G. Weinandy, *Athanasius: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1, 40; 조윤희,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49 (2019): 178, 184.

23 Michael Gorman,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29.

24 Ignatius, “To the Romans,” 7:3, 105.

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거부당하고, 저지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신앙의 가치관은 곧 신앙의 정체성을 말한다. 신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의 정체성과 연결된다.²⁵ 로마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순교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보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자신의 참된 행복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난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만약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사모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앎으로써 나를 동정하게 하십시오. ...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육체인 하나님의 떡이며, 음료로는 그의 피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원한 애찬입니다!(Rom 6.3-7.3)²⁶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성을 얻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당하는 수난의 길을 걸어가며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²⁷ 가운데 있는 로마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순교현장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25 Benjamin L. Gladd, *From Adam and Israel to the Church: A Biblical Theology of the People of God*, 전광규 역, 『하나님 백성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1), 129-130;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김진운 역, 『성경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153.

26 Ignatius, “To the Romans,” 6.3-7.3, 105.

27 Ignatius, “To the Romans,” Text, 103.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글을 썼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절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Rom 8.3)²⁸

그는 ‘하나님의 수난’을 따르는 자신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명성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밝히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신앙과 관련하여 수난의 사건을 다룬다.²⁹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가리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라는 확신을 준다.³⁰ 신앙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같은 수난의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의 『개혁교의학』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최고의 행복을 지식에서 찾고 있다.³¹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또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인위적인 것에 있지 않다.³² 영지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신앙과 교리의 칼을 들었던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한다. 그는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자신의 참된 가치관이 꺾임을 당하지 않도록 협력과 동역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28 Ignatius, “To the Romans,” 8.3, 106.

29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2, 11;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23.

30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Text, 107.

31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22-123.

32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270-271.

2.1.2 ‘그리스도와 연합의 가치관’ 속에 나타난 행복

이그나티우스의 행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직결된다. 그의 행복은 물질적 만족 또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참된 삶의 가치를 실현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고 발견된다.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서 서신을 받을 마그네시아 교인들과 자신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받은 자리에 세워진 자라는 사실이다. 이그나티우스는 행복을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참된 가치관에서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이그나티우스가 메안데르의 마그네시아에 있는 교회에 행복을 빕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총애로 축복을 받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잘 훈련되고 경건한 사랑에 대해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극을 받아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Mag. Text-1.1*)³³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의 『기독교 생활 지침』에 의하면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³⁴ 그에 따르면 “우리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³⁵에 있다. 행복은 느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으로 나타남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된다. 참된 행복은 잠시 즐기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다. 실효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

33 Ignatius, “To the Magnesians,” Text-1.1, 94.

34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1, 181, 247.

35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1, 534.

는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행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세상의 것과 결탁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다.³⁶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신앙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다시 살아나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³⁷

일반적인 사고로 바라볼 때 고난이 해방과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은 범위를 넘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실을 낳는다.³⁸ 이런 참된 가치관 속에 이그나티우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행복의 참된 가치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받은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니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자신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말도록 로마교회를 향해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해받지 않고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대함이 저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운 반면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

36 Ignatius, “To the Romans,” 8:1-3, 105-106;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령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18-19.

37 Ignatius, “To the Romans,” 4.3, 104.

38 문병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따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칼빈의 이해의 고유성,” 「개혁논총」 6 (2007): 36. “...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은 한 지체로서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렇듯 역동적인 의미를 지닌다.”

나눔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Rom, 1.2-2.1)³⁹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라는 필연의 과정이 기다려지고 있는 십자가 신앙을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어내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 자신이 걸어가는 순교의 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자신의 영육이 눈에 보이는 고난에 쓰러짐을 당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자신과 뜻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얻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이 그의 간절한 신앙과 결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참된 행복의 가치관이 생성(生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1.3 ‘신앙의 확신에 따른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행복

행복은 기쁨과 연결된다. 행복은 기쁨을 수반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부활 신앙의 확신 속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속하는 기쁨의 화신”⁴⁰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6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리켜 ‘신앙’으로 설명하고 있다.⁴¹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불렀던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민중에게 허상에 불과한 행복을 안겨 주는 종교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⁴² 그러

39 Ignatius, “To the Romans,” 1.2-2.1, 103.

40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Text, 107. “Yours is a deep, abiding joy in the Passion of our Lord; and by his overflowing mercy you are thoroughly convinced of his resurrection. You are the very personification of eternal and perpetual joy.”

41 Ignatius, “To the Ephesians,” 16.1-2, 92.

42 Anthony C. Thiselton, *Systematic Theology*, 박규태 역, 『조직신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152.

나 이그나티우스에 따르면 십자가와 관련된 부활 신앙의 확신은 감성적인 허상에 따른 현상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안겨주는 참된 행복의 근원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할 것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그릇되게 가르친 사악한 자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 비열한 자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과 함께 끼이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Eph. 16.1-2)⁴³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하였던 죄와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였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제임스 팩커(James I. Packer, 1926-2020)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는 신앙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대속을 거부하는 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행복을 가지게 된다.⁴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제3자의 위치에서 해석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대리적 위치에서의 죽음은 그 값이 될 수 없다.⁴⁵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이그나티우스의 증거는 그리스도가

43 David K.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1* (Hazelwood: Word Aflame Press, 1995), 25-27;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48. “이그나티우스는 이단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할 때 성육신에 대한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론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44 James I. Packer, *Among God's Giants: Aspects of Puritan Christianity*, 박영호 역, 『청교도 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33.

45 John Anthony McGuckin ed. *Ancient Christian Voctrine 2: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Illinois: IVP, 2009), 11.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당사자로서의 죽음인 아담(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한 둘째 아담)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거짓된 것을 밝히는 진리의 실체인 ‘하나님의 신앙’이다. 십자가는 철학과 지식에 따른 구원론을 제시하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거짓됨을 폭로하는 사건이기도 했다.⁴⁶ 이런 십자가와 관련된 부활이 확신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형태를 보이거나 실물이 주어져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신앙)의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다.⁴⁷

이그나티우스가 바라볼 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이단의 사슬로부터 신앙을 지켜내는 근본이 되었다.⁴⁸ 그는 여기에 대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풍부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경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을 경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⁴⁹ 신앙의 확신에 따른 가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까지 기쁨을 주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

46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두 현대 이론 분석: 한나 아렌트와 진 엘슈테인의 대표적 연구서에 나타난 『신국론』 해석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5 (2020), 111-112, 128.

47 조윤호, “헤르만 바빙크의 증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적 이해: 창조회복으로서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개혁논총』 58 (2021): 79.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반하고 있다.”

48 Ralph Del Colle,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58-159; 김영한, “현대판 유대주의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개혁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28 (2010): 15-16;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 (왜관: 분도출판사, 2007), 46; J. van Gendoen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신지철 역, 『개혁교회 교의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743-746.

49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5.1, 109.

여러분은 파벌을 지어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저의 마음에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할 수 없는 기록 보관소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에 의해 생겨난 신앙입니다. 제가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Phil, 8.2*)⁵⁰

그러나 복음에는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수난과 부활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영원히 최고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만약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신앙을 지닌다면 그것들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Phil, 9.2*)⁵¹

벤후저(Kevin J. Vanhoozer, 1957-현재)는 『물음과 행함』에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의 변화를 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잠시 심리적으로 행복을 줄 뿐이며, 결국은 행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힐 뿐이라고 말한다.⁵² 그는 이그나티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신앙 안에서 행복과 건강을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⁵³ 신앙의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와 반응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신앙의 삶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티모시 켈러(Timothy Keller, 1950-2023)의 견해를 따라 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을 추적하다 보면 그 문제의 종착점에서 필시 신앙과 결부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⁵⁴

50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2, 110.

51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2, 111.

52 Kevin J. Vanhoozer, *Hearers and Doers: A Pastor’s Guide to Making Disciples through Scripture and Doctrine*,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있는사람, 2020), 57-58.

53 Vanhoozer, *Hearers and Doers: A Pastor’s Guide to Making Disciples through Scripture and Doctrine*, 169-173;

이그나티우스가 속사도 교부로 활동하던 시대는 스토아 사상과 플라톤의 철학이 사회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⁵⁵ 윤리와 금욕주의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스토아 사상 또한 많은 영향을 끼쳤다.⁵⁶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플라톤(Platon, B.C. 427-347)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생성을 ‘불’, ‘공기’, ‘물’, ‘흙’의 네 가지 원소를 통해 순환과 윤회로 설명한다.⁵⁷ 윤회적 부분은 그의 『파이돈』에서도 동일하게 역설(力說)되고 있다.⁵⁸ ‘이데아’와 ‘물질’의 관계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고자 했던 시대의 흐름이 있었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인간의 이성과 육신이 주는 만족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지 않았다. 그는 행복의 조건을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가치관으로 세워졌고, 이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54 Timothy Keller,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서울: 베가북스, 2012), 180-181.

55 Jaroslav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35; Theo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19-22;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엄성옥 역,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1)』(서울: 은성출판사, 2015), 167.

56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19-22*;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5-17;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46.

57 Platon, *Timaios*, 김유석 역, 『티마이오스』 31b-34a; 48a-53e; 56d-61c(파주: 아카넷, 2019), 53-57; 83-96; 101-112. “먼저 지금껏 우리가 물이라고 불려온 것이 응고되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듯이, 돌과 흙이 됨을 봅니다. 이번에는 같은 것이 녹고 분리되면 바람과 공기가 되며, 공기가 타오르면 불이 되고, 거꾸로 불이 결합되고 꺼지면 공기의 형태로 되돌아오며, 다시 공기가 모여 조밀해지면 구름과 안개가 되고, 이것들이 한층 더 응축되면 그로부터 물이 되어 흐르는가 하면, 물로부터 다시 흙과 돌이 생겨남으로써, 그렇게 그것들은 순환적으로 서로 간에 생겨나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8 Platon, *Phaidon*, 전현상 역, 『파이돈』 107a-107c, (서울: 이제이북스, 2017), 147-148.

2.2 역할의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론

2.2.1 ‘함께 동역하는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행복

리처드 린츠(Richard Lints)에 따르면 “고대의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행복한 상태로의 치유 또는 회복을 가리키는 의학적인 용어였다.”⁵⁹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영혼을 치유 받는 효과를 누리도록 한다. 이런 치유의 효과는 경건한 사람들을 동역에 이르게 하는 독특함을 가지게 한다.⁶⁰ 특히 그가 보낸 일곱 서신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을 향한 서신은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서신이였다. 이 서신에 의하면 신앙 안에서 일치와 연합은 동역하는 기쁨과 함께 참된 행복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며 갈급한 영혼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한다.⁶¹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된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다. 압송 도중 서머나에서 「에베소 인들에게」,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트라레스 인들에게」,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한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빌라텔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폴리갑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한다. 압송 도중 잠시 쉬을 가졌던 두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서신을 기록한다.⁶² 이때 서신의 전달은 압송당

59 Richard Lints, “Soteriology,” in *Mapping Modern Theology: A Thematic and Historical Introduction*, ed. Bruce L. McCormack, Kelly M. Kopic, 박찬호, 『현대신학 지형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42.

60 문병호, “구원의 정점(Culmen Salutis: 갈빈이 설교한 기록문,” 『개혁논총』 6 (2007): 96.

61 Philip Schaff, ed. “Papal Infallibility Explained, and Tested,”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I: The History of the Creed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174; 문병호, “교훈(Didactic)과 변증(Polemic): 베자민 B. 워필드의 증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해,” 『개혁논총』 56 (2021): 65.

62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 75; 조윤희,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242.

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를 반갑게 맞이했던 동역자들에 의해 전달된다. 그들은 ‘열 마리 표범’과도 같은 호위병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함께 동역을 이룬 자들이었다. 이런 사실이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는(폴리비누스) 서머나에서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그는 동역하는 이들의 환영과 위로에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십자가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간다.

나는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고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독인 폴리비누스로부터 추측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는(폴리비누스) 서머나에서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 전체의 회중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통해 나에게 전달한 여러분의 경건한 선의를 받아들였고, 내가 들은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드렸습니다.(Tral, 1.1-2)⁶³

동역하는 역할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서로 동역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중히 여기도록 한다.⁶⁴ 그리고 “분파와 나쁜 감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⁶⁵라며 파벌을 지어 일하지

63 Ignatius, “To the Trallians,” 1.1-2, 98.

64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1-2, 109-110;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32.

65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1; 8.2, 110;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

말도록 촉구한다. 동역에는 일치와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새겨져 있다. 동역하는 역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이 함께 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의 일곱 서신 가운데 「폴리갑에게」 보낸 서신은 특별히 동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주제가 서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감독으로서 동역을 이루고, 교회는 동역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한다.⁶⁶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힘든 훈련을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들, 사정관들, 보조자들로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뛰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십시오.(Pol, 6.1)⁶⁷

동역을 이루는 가운데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 이를 통해 생성된 기쁨은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그나티우스는 유독 동역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자신 또한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신앙 속에 같은 고민을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 과정이 힘이 들어도 행복하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보다 소망과 희망이 보이게 된다. 이그나티우스는 동역의 과정을 통해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2.2.2 ‘한마음을 이루는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행복

이그나티우스는 사슬에 묶여 로마로 향한다. 여기서 그는 세상 사람들

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41.

66 Todd Klutz, “Paul and the development of gentile Christianity,”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ed. Philip F. Esler(Routledge, 2002), 168-170. 교부들은 교회의 근원과 근본에 대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굳게 세워질 것을 가르쳤다.

67 Ignatius, “To Polycarp,” 6.1, 119.

의 관점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자신을 묶고 있는 육신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죄악된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자신에게 참된 해방을 준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한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순교 현장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강조한다.⁶⁸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기에 어떤 모습으로도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⁶⁹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 순교라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방을 주는 순교에 ‘한마음’을 이루길 원한다.⁷⁰ 그리고 함께 참된 가치관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이루는 가치관은 이그나티우스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왔던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에서 발전한 개념이었으며,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행복관이 된다.⁷¹

68 Angelo Di Berardino · Thomas C. Oden · Joel C. Elowsky · James Hoover, ed.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Produced by the Institutum Patristicum Augustinianu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4), 1:30;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 :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9), 251;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V*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2371.

69 Ignatius, “To the Romans,” 1.1-2, 103.

70 Isaac Ambrose, *Looking unto Jesus 1*, 송용자 역, 『예수를 바라보라 1』(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67-73; 조윤희, “위기로 인한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 연구,” 『한국개혁신학』 73 (2022): 131-132.

71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I*, 187; Ernst H. Klotsche,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강정진 역, 『기독교 교리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50-51; 조병하, “초대교회 교회직제 발전에 대한 연구: 사도적 교부, 사도전승, 디다스칼리아를 중심으로(첫 3세기),” 『한국개혁신학』 31 (2011): 203-206;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27-28.

나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나는 죄수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다시 살아나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Rom, 4.3)⁷²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서 이들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으로 비취낸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 두 번째는 ‘선택된 자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거리’로서 이들의 가치를 표현해낸다.⁷³ 트랄레스인들의 모습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가 자신의 간접적인 행복으로 나타났다. 로마인들을 향해서는 ‘한마음’의 가치관으로 행복을 전했다면(전하고), 트랄레스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받는다).⁷⁴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별을 고하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한다.⁷⁵ 왜냐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별을 고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는 감독에게 복종하고, 장로회에도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목숨은 지금뿐만 아니라 특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Tral, 13.2-3)⁷⁶

72 Ignatius, “To the Romans,” 4.3, 104.

73 Ignatius, “To the Trallians,” Text, 98.

74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48-152.

75 Benjamin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Wiltshire: Banner of Truth Trust, 2002), 524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신앙을 ‘믿음’으로 시작하며 끝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⁷⁷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이루어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영적인 진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영적 진주인 사슬들을 곳곳에 지닌 채 다니고 있습니다”⁷⁸라고 표현한다.

행복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다른 조건과 환경이 행복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를 1차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를 2차 원인에 따른 결과라 말할 수 있다. 2차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통해 느껴지는 행복이다. 감각기관 또는 시각기관 등 사람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티모시 켈러의 『예수를 만나다』에 의하면 행복은 물질과 직업, 환경 등 다양함을 통해 전해진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행복에 따른 만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만족이 채워졌을지라도 내부의 목마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⁷⁹ 내면에 공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면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는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이루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통해 그들이 누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

76 Ignatius, “To the Trallians,” 13.2-3, 101.

77 Ignatius, “To the Ephesians,” 14:1, 91-92; 조운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42.

78 Ignatius, “To the Ephesians,” 11:2, 91.

79 Timothy Keller, *Encounters with Jesus*, 전성호 역, 『예수를 만나다』 (서울: 베가북스, 2014), 61-66.

2.3 참된 고난의 가치관 속에서 찾은 행복론

2.3.1 ‘택함 받은 자로서’ 누리는 행복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당하던 도중 서머나에서 네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났고 가장 먼저 서신을 쓰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왜냐하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던 주범인 영지주의 이단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구원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을 구출하는 것으로 가르쳤던 거짓된 ‘영적 구원론’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한다.⁸¹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현적 장면으로 매도한다.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에 의하면 초기 교부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성만찬의 특별한 효과로 표현하였다.⁸² 그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현적으로 봤던 영지주의 이단들과 커다란 구별점이 되었기 때문이다.⁸³

80 William C.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45;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30-32; Karl Suso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329-330; Alister McGrath,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3인 역,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경기: 知와 사랑, 2016), 60; Elaine Pagels and Karen L. King, *Reading Judas: the gospel of judas and the shaping of christianity* (New York: Viking Press, 2007), 71-72.

81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127, 131, 151-152.

8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III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Marketing, 2011), 649.

83 Ignatius, “To the Ephesians,” 20.1-2, 93;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49.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희생의 제물이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니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고후 5:21)이었다.⁸⁴

나는 여러분의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사랑 안에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의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Smy, 1.1-2)⁸⁵

그들은(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과 기도의 예식을 멀리합니다.(Smy, 7.1)⁸⁶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8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대속을 이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⁸⁷라고 말한다. 이런 방식의 포괄적 신학은 신앙을 신학과 접목하여 설명하고 제시했던 초기 교부들의 신학적 특징이기도 했다.⁸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

84 Robert Paul Roth, “The Intercessory Work of Christ,” in *Basics of the Faith: An Evangelical Introduction to Christian Doctrine*, ed. Carl F. Henry, 노진준 역,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기독교 기본 교리』 (서울: 조이선교회, 2020), 233-234.

85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 112-113.

86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 114.

87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92.

88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7), 286; 조윤희,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회복

되고 있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 ‘지식적 구원’을 펼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였다.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사상에 헬레니즘을 가미했을 뿐 아니라 에비온주의의 일정부분을 흡수하며 교회를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몰아간다.⁸⁹ 이런 이유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은 그가 기록하였던 일곱 서신 가운데 가장 긴 21장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단에 따른 문제를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논증했던 서신이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였다. 이 서신에서 그는 자신의 상태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인사말에 해당하는 서문을 통해 두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된 고난’과 ‘행복’이다.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자’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기쁨으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애정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 여러분의 일치와 택하심으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참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행복하다고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Ep, Text)⁹⁰

우리의 구원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찾아진다. 토머스 보스톤(Thomas Boston, 1676-1732)

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178, 184; P. B. Schmid,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서울: 컨콜디아사, 2003), 89; McGrath,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45; 조운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70-99.

89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122; 정일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서: 기독교와 불교 대화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개혁신학』 37 (2013): 1; Madeleine Scopello, *Les Gnostiques*, 이수민 편역, 『영지주의자들』(왜관: 분도출판사, 2005), 33-34;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of Justin, the Martyr,”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26-29, 258-260.

90 Ignatius, “To the Ephesians,” Text, 87.

의 『인간의 4중 상태』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은 피조물을 즐기는 데(얻는 것)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⁹¹ 이그나티우스가 걸어가는 순교의 길과 에베소 인들이 걷고 있는 고난은 개인의 욕망 또는 자신의 문제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었다.⁹²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가리켜 ‘참된 고난’이라 부른다. 그리고 ‘참된 고난’은 택함 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을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⁹³

‘하나님의 피(그리스도의 보혈)’는 ‘참된 고난’ 가운데 놓인 택함 받은 자를 인격적으로 더욱 분발하게 한다.⁹⁴ ‘참된 고난’이 주는 ‘참된 행복’을 아는 자는 고난이 눈 앞에 펼쳐질지라도 더욱 분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참된 고난’ 가운데 놓인 자(택함을 받은 자)가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택함을 받은 자가 받는 ‘참된 고난’은 절망이 아니고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함께 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자가 되도록 권면한다.⁹⁵

91 Thomas Boston,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스테판 황, 『인간 본성의 4중 상태』(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36.

92 Thomas Brooks, “The Mute Christian under the Smarting Rod,” in *The Works of Thomas Brooks*, ed. Alexander B. Grosar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1), 1:287.

93 Ignatius, “To the Ephesians,” Text, 87.

94 Ignatius, “To the Ephesians,” 1.1, 87.

95 Ignatius, “To the Ephesians,” 5.1-2, 89.

2.3.2 '부활의 확신'이 주는 참된 행복

로버트 H. 스타인(Robert H. Stein, 1935-현재)은 예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부활'을 마지막 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⁶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미래의 행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확신하는 것에 있다.⁹⁷ 확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그 모습이 비춰진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따른 확신이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보증이 담보되는 확신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확신의 근거는 동등한 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은 단계에서 주어진다. 특히 확신이 소망과 희망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주어진다면 이것은 행복의 관점으로 연결된다.

이그나티우스는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희망한다.⁹⁸ 그는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⁹⁹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의 수난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¹⁰⁰ 이와 관련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의 피¹⁰¹

96 Robert H. Stein, *Jesus the Messiah*, 황영철 역, 『메시아 예수』(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324.

97 Stein, *Jesus the Messiah*, 170.

98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14.

99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35-36.

100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2, 11;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23.

101 Hermann Lichtenberger, *Fruhjudentum und Kirche im Neuen Testament*, 박성호 역,

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머나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본다.¹⁰² 「서머나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

하나님과 진정한 성도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몸과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사랑에 뿌리를 두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우리는 그분의 가장 축복받은 수난으로부터 자라난 그분의 열매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부활을 통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의 성도와 신자들을 영원히 한 몸인 교회로 모으는 표준을 세우셨습니다.(Smy 1:1-2)¹⁰³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 또는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형태로 계셨던 것이며 자신은 여기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내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부활 후에도 그분은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¹⁰⁴ 그는 강조하기를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것이며 자신의 모습 또한 가짜라고 고백한다.¹⁰⁵

알레고리적인 적용보다 복음서를 풀어 설명하기를 원했던 이그나티우스는 다윗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하기를 원한다. 언약의 성취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

『초기 유대교와 신약의 교회』(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00-117;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130.

102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 112-113.

103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 112-113.

104 Ignatius, “To the Smyrnaeans,” 3:1, 113.

105 Ignatius, “To the Smyrnaeans,” 4:2, 113.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종말론과 연결한다.¹⁰⁶ 그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8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¹⁰⁷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부활의 확신이 주는 참된 행복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부활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비록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부활이 주는 소망과 희망의 확신은 장차 일어날 일을 담보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에 따르면 부활이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며, 참된 행복의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3 나가는 말: 참된 가치관에서 찾은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영혼의 활동에서 바라봤다면 이그나티우스는 ‘신앙의 가치관’, ‘역할의 가치관’, ‘참된 고난의 가치관’이라는 세 가지의 가치관을 통해 행복을 찾고 있다. 그의 세 가지 가치관은 신앙과 접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되는 가치관에서 찾는 행복,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성취를 통해 일어나는 행복과 신앙의 확신에 따른 행복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도’의 모습에서 찾는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교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찾아지는 영적인 행복을 참된 고난의 가치관에서 함께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현

106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60-161.

107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75.

재적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택함을 받은 자의 근본적인 가치와 부활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미래적 행복'이었다.

인성을 취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무리 시간이었을 것이다.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주한 순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기쁨이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 제자들과 마주한 것이 행복이었다.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가치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찾았다. 순교라는 십자가의 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타나는 기쁨은 참된 행복이었다. 신앙의 확신은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고난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도록 한다. 이그나티우스의 행복론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행복은 만족과 충족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된 가치관에서 만들어진다.

이그나티우스의 행복론은 참된 신앙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 두려움의 공포와 고난이 자신을 충분히 무너뜨리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의 가치관은 참된 행복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 참된 신앙의 가치관 속에 나타나는 이그나티우스의 행복론은 물질과 환경이 주는 행복을 앞서고 넘어서게 한다. 그의 참된 신앙의 가치관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행복 속에 장래를 더욱 확신하며 나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그나티우스의 행복론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혼탁한 시대 앞에 놓여 있는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의 행복론 가운데는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론이 있다. 한마음을 이루는 가치관이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의 울타리를 세우게 한다. 그리고 행복의 막을 형성하여 서로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총착지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게 한다.

참고문헌

- 김영한. “현대판 유대주의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개혁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28 (2010): 8-34.
- 문병호. “구원의 정점(Culmen Salutis: 칼빈이 설교한 기독교론.” 『개혁논총』 6 (2007): 87-113.
- _____.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따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칼빈의 이해의 고유성.” 『개혁논총』 6 (2007): 27-56.
- _____. “‘교훈(Didactic)과 변증(Polemic): 베자민 B. 위필드의 증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해.” 『개혁논총』 56 (2021): 61-92.
-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두 현대 이론 분석: 한나 아렌트와 진 엘슈테인의 대표적 연구서에 나타난 『신국론』 해석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5 (2020): 63-142.
- 조병하. “초대교회 교회직제 발전에 대한 연구: 사도적 교부, 사도전승, 디다스칼리아를 중심으로(첫 3세기).” 『한국개혁신학』 31 (2011): 190-217.
- 조윤희.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49 (2019): 153-195.
- _____.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18-268.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24-167.
- _____. “헤르만 바빙크의 증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해: 창조회복으로서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개혁논총』 58 (2021): 73-108.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30 (2022): 7-48.
- _____. “위기로 인한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 연구.” 『한국개혁신학』 73 (2022): 103-142.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4 (2022): 25-67.
- _____.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 정일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서: 기독교와 불교 대화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개혁신학』 37 (2013): 117-151.
- Ambrose, Isaac. *Looking unto Jesus 1*. 송용자 역. 『예수를 바라보라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A. Muller, Richard.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7.
- Aristoteles. *Ethika Nikomacheia*. 천병희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파주: 숲, 2015.
- Augustinus. *De Civitate Dei*. 성엽 역. 『신국론』. 왜관: 분도출판사, 2004.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Baxter, Richard. *A Christian Directory 1*. 박홍규 역. 『기독교 생활 지침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Bernard, David K.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1*. Hazelwood: Word Aflame Press, 1995.
-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1; Ernst H. Klotzsche.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강정진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Berkhof, Louis.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 Bettenson, Henry,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Brooks, Thomas. “The Mute Christian under the Smarting Rod.” In *The Works of Thomas Brooks*, edited by Alexander B. Grosar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1.
- Boston, Thomas.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스테반 황. 『인간 본성의 4중 상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Bruce, F. F. “The History of New Testament Study.”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edited by I. Howard Marshall. 이승호 · 박영호 역. 『신학 교육의 역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B. Schmid, P.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컨콜디아사, 2003.
- C. Placher, William.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 C. Thiselton, Anthony.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

- 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Dassmann, Ernst.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Del Colle, Ralph.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Di Berardino, Angelo, Thomas C. Oden, Joel C. Elowsky, and James Hoover, ed.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Produced by the Institutum Patristicum Augustinianu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4.
- Donahue, Paul J. “Jewish Christianity in the Letters of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32 (1978): 81-93.
- Drobner, H. 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Frame, John M.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김진운 역. 『성경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 Gentry, Peter J.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Crossway, 2018.
- Gladd, Benjamin L. *From Adam and Israel to the Church: A Biblical Theology of the People of God*. 전광규 역. 『하나님 백성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1.
- Gorman, Michael.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H. Stein, Robert. *Jesus the Messiah*. 황영철 역. 『메시아 예수』, 서울: 한국기독교학술회출판부, 2001.
- Hamman, Adalbert.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 Hartog, Paul A. “Imitatio Christi and Imitatio Dei: High Christology and Ignatius of antioch’s Ethics.” *Perichoresis* (2019): 3-22.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II*.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Marketing, 2011.
- I. Packer, James. *Among God’s Giants: Aspects of Puritan Christianity*. 박영호 역. 『청교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Magn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Trall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Polycarp.”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J. Vanhoozer, Kevin. *Hearers and Doers: A Pastor’s Guide to Making Disciples through Scripture and Doctrine*.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있는 사람, 2020.
- Keller, Timothy.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서울: 베가북스, 2012.
- _____. *Encounters with Jesus*. 전성호 역. 『예수를 만나다』. 서울: 베가북스, 2014.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Klutz, Todd. “Paul and the development of gentile Christianity.”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edited by Philip F. Esler. Routledge, 2002.
- Kobusch, Theo.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 Lichtenberger, Hermann. *Fruhjudentum und Kirche im Neuen Testament*. 박성호 역. 『초기 유대교와 신약의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Lints, Richard. “Soteriology.” In *Mapping Modern Theology: A Thematic and Historical Introduction*, edited by Bruce L. McCormack, Kelly M. Kopic. 박찬호. 『현대신학 지형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Lubac, Henri de.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광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화성: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 MacCulloch, Diarmaid. *A History of Christianity: The First Three Thousand Years*. 박창훈 역. 『3천년 기독교 역사 I : 고대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Martyr, Justin. "The First Apology of Justin, the Martyr."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Mayer Wendy. "Re-Theorizing Religious Conflict: Early Christianity to late antiquity and beyond."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ited by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 McGinn, Bernard.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엄성옥 역.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1)』, 서울: 은성출판사, 2015.
- McGrath, Alistar.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3인 역.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경기:知와 사랑, 2016.
- McGuckin, John Anthony, ed. *Ancient Christian Voctirne 2: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Illinois: IVP, 2009.
-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조규만 외 3인 역. 『신학사 1』,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 Orr, James,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 Pagels, Elaine. and L. King, Karen. *Reading Judas: the gospel of judas and the shaping of christianity*. New York: Viking Press, 2007.
-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lated by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 Paul Roth, Robert. "The Intercessory Work of Christ." In *Basics of the Faith: An Evangelical Introduction to Christian Doctrine*, edited by Carl F. Henry. 노진준 역.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기독교 기본 교리』, 서울: 조이선교회, 2020.
- Pelikan, Jaroslav.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 Platon. *Phaidon*. 전현상 역. 『파이돈』, 서울: 이제이북스, 2017.
- _____. *Timaios*. 김유석 역. 『티마이오스』, 파주: 아카넷, 2019.
- Ritter, A. M. *Kirchen-und Theoolgiegeschichte in Quellen: Alte Kirche*. 공성철 역. 『고대교회 : 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9.

- _____, ed. "Papal Infallibility Explained, and Tested."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I: The History of the Creed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 Scopello, Madeleine. *Les Gnostiques*. 이수민 편역. 『영지주의자들』.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Suso Frank, Karl.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Thiselton, Anthony C. *Systematic Theology*. 박규태 역. 『조직신학』.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8.
- Van den Brink, Gijsbert. & C. Van der Kooi. *Christian Dogmatics: An Introduction*. Michigan: Wm. B. Eerdmans, 2017.
- Vanhoozer, Kevin J. *Hearers and Doers*.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있는사람, 2020.
- Van Gendoen, J.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신지철 역. 『개혁교회 교의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Warfield, Benjamin B. *Biblical Doctrines*. Wiltshire: Banner of Truth Trust, 2002.
- Weinandy, Thomas G. *Athanasius: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국문초록

조윤희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행복이란? 이 물음에 대해 한 가지로 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복은 각자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가지 방향에서 찾고 있다. 하나는 ‘신적 요소’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습과 훈련 등 ‘사람의 요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신적 섭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행복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쪽에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그나티우스는 행복의 근원을 신앙과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 그는 이것을 세 가지의 가치관으로 증거한다.

(1) 신앙의 가치관 (2) 역할의 가치관 (3) 참된 고난의 가치관이다.

행복은 찾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그의 세 가지 가치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가지 행복론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가치관’, ‘그리스도와 연합의 가치관’, ‘신앙의 확신에 따른 가치관’, ‘함께 동역하는 가치관’, ‘한마음을 이루는 가치관’, ‘택함 받은 자로서’, ‘부활의 확신’).

이그나티우스의 가치관 속에 나타난 행복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와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된다. 이런 그의 행복론을 그가 쓴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과 그의 행복론이 가지는 참된 가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일곱 가지 행복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된다.

주제어: 이그나티우스, 행복론, 가치관, 신앙, 고난

The Seven Theories of Happiness in Ignatius' Values: Focusing on the seven epistles of Ignatius

YounHo Jo

Senior Pastor, Gerizim Church, Systematic Theology

What is Happiness? It is impossible to give a singl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is because happiness appears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each person's circumstances and circumstances. Aristoteles looks for happiness in two ways: one is given through a "divine element," and the other is created through a "human element," such as learning and training. Augustine, on the other hand, explains happiness through divine providence.

Ignatius' theory of happiness is closely related to his own values. Aristotle explains happiness in terms of the pursuit of happiness. On the other hand, Ignatius connects the source of happiness with faith. This is a confession that the source of happiness is from God. He proves this with three values. (1) The value of faith (2) The value of role (3) The value of true suffering.

Happiness is not something to be found or discovered. Ignatius gives us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His seven theories of happiness, which appear in his three values, are a good representation of this. ('Values that make God proud', 'Values of union with Christ', 'Values based on assurance of faith', 'Values of working together', 'Values of forming one mind', 'As the chosen ones', 'Values of resurrection assurance')

The theory of happiness in Ignatius's values is comprehensively explained through 'discipleship' and 'faith of the cross' that resemble Christ. It is worthwhile to study his theory of happiness in the context of the seven epistles he wrote. Here we encounter the true value of his thoughts and his theory of happiness. And through the seven theories of happiness, we know why faith in God is so important.

Key Words: Ignatius, Theory of Happiness, Values, Faith, Suffering